

세계 정치와 하나님 (5) – 미국을 사용하신 하나님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

[마태복음 6:33]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편 33:12]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지난 4 편의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정치 및 관리에 어떤 뜻을 가지셨으며,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성경을 중심으로 탐구하여 하나님의 세계 관리 원칙과 주요 개입 사건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 뿐 아니라 온 민족들의 메시아로서의 소명을 다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통치자들로서 항상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대 원칙,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원칙과 대 원칙을 주신 사실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구 세계는 천주교가 로마 제국에 이어 여러 나라들을 개종함에 따라 왕들과 귀족들을 교리로 묶어서 교황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10 세기 이상의 소위 ‘암흑의 시대 [Dark Ages]’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대륙이 발견됨에 따라 서구의 역사의 장은 좁은 유럽을 벗어나 신세계인 남과 북 아메리카 대륙까지 포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이곳으로 이주한 유럽인들을 통하여 확장, 실행되어 왔습니다.

4. 미국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 미국 건국과 하나님

유럽 제국들은 자신들의 부를 증가하고 세계사에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으로 적극 진출하였습니다. 콜럼버스의 모국인 스페인이 맨 처음 신세계를 탐험하여 오늘날의 카리비안 제도들과 남미에 진출하였고 또한 북아메리카에도 식민지를 개척하여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의 함대에 궤멸된 이후 1650 년까지 영국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 대륙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북미의 대서양 연안에 배타적인 식민지들을 수립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으로 건너온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본국의 종교적 탄압을 피하여 과감하게 조국을 버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 항에 1620 년에 도착한 소위 ‘필그림’들과 버지니아에 도착한 사람들 모두 처음에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식량 자급 수단을 수립하였고 이어서 옥수수과 담배를 경작하여 차츰 생존과 번영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700 년대에 가서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수입하여 대부분의 육체 노동력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770 년에는 영국의 관할 아래에 13 군데의 식민지들이 수립되어 총 인구는 2 백만을 넘게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지휘한 식민지 독립군은 영국의 억압적인 식민 정책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염원으로 영국군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776 년에 독립 선언서를 발표함으로써 미합중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뒤에는 당시의 미국 독립 세대에서 잘 알려지고 존경 받는 소위 ‘건국의 아버지들 [Founding Fathers]’의 헌신적인 노력과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미국 건국을 위한 그들의 꿈과 이상은 독립 선언서와 미합중국 헌법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10 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 에덤스, 사무엘 에덤스, 벤저민 프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턴, 패트릭 헨리,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존 마셜, 조지 메이슨, 조지 워싱턴. 이 10 명 중에서 물론 조지 워싱턴이 가장 존경받는 리더이었습니다.

이 미국 건국의 국부들이 이룩한 업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자유주의적 원칙에 기초를 둔 근대 국가를 창설하였습니다. 그 원칙들을 열거한다면,

- 1) 나라의 주권은 국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원칙.
- 2) 국가의 계획 통제 경제 체제를 부인하며, 시장의 매커니즘 속에서 개인의 창의적 에너지를 통해 발현되는 경제적 생산성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의 원칙
- 3) 국가의 통치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원칙
- 4)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동등하다는 사법 원칙

이러한 고귀한 원칙들을 건국 국부들은 토론을 통하여 합의하고 이들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폭력이나 혁명적 수단을 사용함이 없이 평화롭게 이룩했다는 데에 미국 건국의 위대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건국에 영향을 입어 19 세기에 유럽의 왕실들이 폐지, 몰락 내지 그 권위가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20 세기에 들어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파시스트 정권과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미국의 독립 선언서나 헌법은 어떤 하나의 종교를 천명하고 있지 않지만 신앙과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추구할 자유 등을 인류 역사상 처음 명시함으로써 성경에 포함된 원칙과 사상을 정치 체제에 구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국민들이 미국을 존경하고 미국이 자유민주 세계를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계속 강력하게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건국 국부들의 업적은 그들 대부분이 목회자이거나, 신학자들이거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기에 이러한 사상적 합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문서들과 이후의 주요 문서들에 포함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의 표현들로서 다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1) 미국 독립 선언문: “우리는 다음 진리들이 자명함을 천명한다. 즉,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태어나며, 창조주에 의하여 다음 불가분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 권리들은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도록 사람들 가운데 정부를 수립하며, 그 정부는 국민의 동의에 의하여 정당한 권력을 부여받는다. 만일 어떤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파괴하게 된다면 국민은 그러한 정부를 고치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으며, 상기 원칙에 바탕을 두는 정부, 그러한 형태의 권력을 조직하는 정부, 이로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성취하기에 가장 합당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 2) 제 1 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연설: “모든 국가들의 임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만재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그 분의 은택에 감사하며 그 분의 보호하심과 호의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 3)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기도문: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말과 일을 주관하시옵소서. 나의 죄를 어린양 예수의 무죄한 보혈로 씻어 주시고 나의 가슴을 성령님으로 정하게 해 주옵소서. 매일 나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 가까이 만드셔서 당신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당신의

호의 가운데 죽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정하신 시기에 영생하도록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나이다. 오 주님, 온 인류와 온 세계가 하나님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 4) 제 2 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그분의 공의는 영원토록 깨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 떨면서 두려워 합니다.”
- 5) 미국 헌법 제 1 수정: “의회는 종교의 수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나, 불만 사항의 해소를 위한 정부에 소원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해서는 아니된다.”
- 6)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국가들과 국민들은 세상에 편만한 하나님의 통치권에 의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성경이 선언하고 모든 역사가 입증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로 섬기는 나라들만이 축복받는 나라들이다.”

나. 1 차 및 2 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미국을 사용하신 하나님

미국은 유럽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제 1 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지 3 년간이나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1917 년 4 월에 가서야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고 참전하였다. 총 4 백만명을 징집, 동원하여 그 중에 무려 11 만명이 전사했는데, 전사자 중 45,000 명은 스페인 독감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었으며 다수의 미국인들은 참전에 반대하는 분위기 이었고 단지 영국과 불란서 등의 참전국들에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재정과 물자를 크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육군은 대륙 전쟁 수행을 하기에는 불충분한 크기이었는데 이 전쟁을 통하여 군의 규모가 많이 커지게 되었고 따라서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공격으로 영불을 지원하는 미국의 수송선들을 격침시키고, 멕시코의 대미 테러분자들을 지원하고 있음이 발각되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중립만 지키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의 제 1 차 세계 대전 참전으로 개신교 국가인 영국과 불란서 등 서방 국가들이 살아 남게 된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측면에서 다행인 결과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국을 움직여서 자유 주의 국가들을 위하여 큰 희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대서양 넘어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대전쟁을 지원하고 참전하기 위하여는 미국의 군수 물자 및 장비의 생산 능력이 급격히 신장되어야 하였고, 이는 미국 내의 각종 산업 기술 능력과 생산 설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노동력의 동원과 활용, 관리 기술 또한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남성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동안 많은 여성 인력이 산업 생산에 동원됨으로써 여성의 권익과 경제적 지위 또한 제한적이거나 향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전쟁 지원 능력의 신장은 수년 후에 닥쳐 온 제 2 차 세계 대전의 수행을 위한 미국의 역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유럽과 아시아 양쪽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미국으로서는 효과적인 준비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만일 미국이 제 2 차 대전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그 전쟁을 승리고 이끌만한 군사적, 산업적, 재정적, 그리고 리더쉽 측면에서 역량이 부족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가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대통령들과 지도층,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준비하여서 유럽의 파시스트

정권들의 만행과 의도를 미워하고 일본의 야만성과 아시아에서의 야욕을 꺾어야 하겠다는 굳은 결단으로 뚝뚝 뭉치게 하셨습니다.

제 1 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 정책을 취하여 1939 년에 제 2 차 대전이 발발하고 2 년간 미국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서방 참전국들에게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군수 기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미국은 1941 년 11 월에 독일에 선전 포고를 했고, 다음 달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여 대서양과 태평양 두 대양을 건너 적국들과 전쟁해야 했습니다. 총 1600 만명의 미국인이 참전했고 그 중 40 만명이 전사하고 60 만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치러서 유럽의 파시스트 세력이 괴멸되었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군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민의 희생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미국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반도의 분할이 미국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 때문에 한반도의 남쪽 절반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살아남아 오늘날 세계 9 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잘사는 나라가 된것은 절대적으로 미국의 덕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 2 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1945 년 8 월 초에 소련군은 이미 원산에 상륙하였으나 미군은 아직 오키나와에서 일본군의 끈질긴 저항을 진압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소련을 미국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소련이 38 선 이북을 점령할 터이니 미군은 이남만 차지해라. 그 대신 동유럽에서 소련의 지배권에 간섭하지 말아라”는 제안이었는데, 여러 이유로 미국측은 소련의 이 한반도 분할안에 동의했습니다. 만일 소련이 이러한 제안을 하지 않고 원산에서 그냥 남진했더라면 8 월 15 일 이전까지 용이하게 부산과 목포까지 점령할 수 있었고, 따라서 오늘날 한반도 전체는 공산주의 국가로 남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일제 강점기 후반에 있었던 북한 지방의 복음화,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성령 운동 등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국과 소련 간의 대화를 통하여 남한 국민들에게 자유를 허용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이스라엘의 건국과 존속을 위해 미국을 사용하신 하나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제 2 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33 년부터 1945 년까지 12 년간 4 번째의 임기를 수행하던 중 1945 년 5 월 8 일에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1953 년까지의 임기 동안에 제 2 차 대전의 종료를 마무리 했고, 1950 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을 한반도 전장에 파견하여 우리 한국을 구출해 준 고마운 미국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서기 70 년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온 민족이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유랑하다가 제 2 차 대전이 종식되자 시오니즘을 성취하고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몰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948 년 5 월 부활한 이스라엘을 하나의 독립 국가로 선언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당시 미국 내각의 쟁쟁한 지도자들, 즉 국무장관인 마셜 원수, CIA, 국방부 등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독립국 이스라엘을 승인하는 최초 국가가 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루먼은 전쟁 중에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통하여 겪은 참담한 고초와 구약 성서의 다음 구절을 참모진들에게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신명기 1:8] 보라, 주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은즉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또한 트루먼 대통령은 1917년에 영국이 선언한 소위 ‘벨포어 선언,’ 즉 영국이 장래에 유대인들에게 자주 국가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에는 영국의 약속은 미국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님께서 “해리야, 네가 장래에 이스라엘 민족을 도울 처지에 있게 되거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당부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승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대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트루먼의 유대인들에게 대한 따뜻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경제, 군사적 원조를 지원하여 그 나라가 성장하도록 도와 왔습니다. 특히 1973년 10월의 욘키푸르 전쟁시 이스라엘의 골다 메어 수상은 긴급한 요청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즉각 응답하여 미국의 항공기와 전투 장비들을 이스라엘로 긴급 공수토록 명령하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를 이용하여 이집트와 시리아 등 아랍국들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웨이커 교도이었던 닉슨 대통령 역시 청소년 시절에 유대인들을 도우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당부를 기억하고 대통령으로서 이스라엘을 돕는 정책을 적극 펼친 것입니다. 비록 그가 탄핵의 위기에 몰려 불명예스럽게 사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도운 그의 업적과 미국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 한국을 돕기 위해 미국을 사용하신 하나님

1950년 6월 25일에 북한 공산군이 갑자기 38선을 넘어 자유 대한민국을 침공하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의회의 동의도 없이 유엔 안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유엔군을 결성하여 미군을 한반도 전장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 갔지만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 연합군은 서울을 탈환하고 이어서 북한 전역을 거의 해방시키면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군이 대거 전쟁에 참여함에 따라 1953년 휴전이 오늘날의 휴전선에서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휴전 상황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만주의 중공군 기지를 폭격함으로써 중공군을 궤멸하고자 한 의도는 한반도 통일 뿐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방지하자는데 있었으나 트루먼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정책은 봉쇄 정책 [containment policy]이었기 때문에 맥아더는 파면되고, 불행히도 전쟁은 2년반 동안 한반도 허리 주변에서 진전 없이 계속되면서, 3년간에 137,000명의 한국군과 33,000명의 미군 사상자를 초래하였습니다.

비록 트루먼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놓치게 한 오류를 범했다 하여도 전쟁 초기에 즉각적으로 미군을 한반도에 파병하기로 한 결정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살아 남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분으로 한국인들에게는 맥아더 장군과 더불어 큰 은인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좌파 친북, 친공 정권은 이렇게 큰 희생을 치러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발전해 온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국민을 오도하고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분명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모든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한국의 현 정부 내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척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그들의 죄 값을 하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한국전 이후에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에 미군의 지상군과 공군력엘 주둔시킴으로써 북한군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고마운 역할을 해 왔습니다. 만일에 미군이 한국에 없었더라면 한국의 경제 발전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외국 자본을 획득할 수 없었을 것이며, 크고 작은 도발을 해온 북한 정권은 분명히 제 2의 남침을 시도했을 것이며 그 결과는 다신 한번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지난 수십년간 전쟁이 그치지 않는 아프카니스탄과 유사한 형편에 처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프카니스탄에 1년간 파견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정말로 탈레반의 지속적인 무장 테러 공격으로 나라가 한시도 평온할 수도 없고, 외국 기업이 이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으며, 온 백성이 빈곤에 시달리며 탈레반의 협박으로 정당한 농업이나 상업 행위도 자유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온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미군이 그나마 이 나라에 있어서 정부와 군대가 유지되어 현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을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민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전에서 죽거나 부상한 참전 용사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형제 사랑의 파병과 병력 주둔을 지원해 준 미국민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국 국민들이 한국에 호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 30 퍼센트가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멀리 태평양 넘어 존재하는 작은 반도의 도막난 나라, 대한민국을 그들이 도와줄 이유가 그것 말고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민들은 그렇게 미국이 도와준 한국이 이제 열심히 일해서 상당한 경제 대국이 되어서 현대차와 엘지 냉장고, 세탁기를 팔며, 삼성 셀폰을 미국 시장에 팔게 된 사실에 놀라우면서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희생한 보람이 이렇게 훌륭한 결과로 돌아온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해 어떻게 미국을 사용하셨고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다음 편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